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균원물가지수 빠르게 상승...소비 증가는 약세
- Reuters: 미 노동 비용, 2분기 예상치보다 소폭 상승
- Bloomberg: 미 기업들 일자리 축소 계획 크게 늘어
- Bloomberg: 연준 9대 2로 금리 동결...주요 내용

[무역 전쟁]

- Bloomberg: 트럼프 관세 마감 앞두고 한국 등과 관세 발표 쏟아내
- Bloomberg: 대만과 미국 무역 합의 근접
- Bloomberg: 트럼프 관세 연방 항고 심리 시작된다
- The Economist: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나

[인공지능]

- WSJ: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성과 좋은 이유

[주택]

- WSJ: 6월 미 주택 판매 예약 건수 예상보다 감소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마스터 카드, 서비스 및 지출 증가로 이익 성장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Key US Inflation Gauge Picks Up on Goods, Spending Barely Rises

미 균원물가지수 빠르게 상승... 소비 증가는 약세

- 6월에 이른바 연준이 선호하는 경제 지표인 균원 개인소비지출 물가 지수가 올해 빠르게 상승했다.
- 균원 물가 지수는 5월에 비해 0.3% 증가했다고 오늘 목요일 연방 경제 정보국은 밝혔다.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2.8%나 상승했다.
- 5월에 감소했던 인플레 조정 소비자 지출은 약간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Reuters: US labor costs rise slightly above expectations in second quarter

미 노동비용, 2분기 예상치보다 소폭 상승

- 미국의 노동 시장이 둔화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 비용이 2분기에 예상보다 소폭 상승했다.
- 노동 비용을 측정하는 가장 광범위한 지표가 되는 고용 비용 지수(ECI)는 지난 분기에 0.9% 상승했다.
- 6월 실업자 1인당 일자리 수는 1.06개로, 1월 1.33개보다 하락했다. 관세 영향 우려로 인해 기업들의 채용 둔화에 따라 고용 시장의 모멘텀이 약화한 것이다.
- 인건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과 급여는 1분기 0.8% 상승에 이어 2분기에는 1% 상승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3.6% 상승한 수치이다.

Reuters 기사

Bloomberg: US Job-Cut Plans Jump Due to AI and Tariffs, Challenger Data Show

미 기업들 일자리 축소 계획 크게 늘어

- 미국 기업들이 7월 한 달간 62,075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의 약 25,900명보다 증가한 수치이며, 7월 감축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인공지능과 관세를 삭감의 이유로 꼽았고, 이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해고와 매장 폐쇄가 이어지고 있다.
-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들은 AI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다른 부문의 비용 절감 또한 모색하고 있다.
- 계획된 감원이 즉각적인 해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6월 기준 실업률은 4.1%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Here Are the Key Takeaways From Fed's Decision to Hold Rates Steady

연준 9대 2로 금리 동결... 주요 내용

-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4.25~4.5%의 범위에서 동결하기로 어제 수요일 결정했다.
- 연준 이사 Christopher Waller와 Michelle Bowman은 이 결정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는 1993년 이후 처음 있는 내부 이견이다. 이들 두 명은 트럼프에 의해 지명된 인물들이다.
- 이날 발표된 입장문에 따르면, 상반기 경제 활동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노동 시장 상황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고,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강조했으며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표현은 삭제했다.

Bloomberg 기사

[무역 전쟁]

Bloomberg: Trump Unleashes Flurry of Trade Announcements on Eve of Deadline

트럼프 관세 유예 마감 앞두고 한국 등과 관세 발표 쏟아내

- 트럼프는 8월 1일 관세 유예 마감일을 앞두고 한국과의 관세 합의와 구리 등 관세 정책 등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는 어제 수요일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15%의 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인도에는 25%의 관세 부과 및 러시아 에너지 무기 구입 시 추가 페널티 부과를 발표했다.
- 트럼프의 관세 위협으로 태국과 캄보디아가 휴전 협정을 맺을 것으로 보이며 대만의 경우도 일정 부분 합의 상태에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번 주 금요일에 관세 합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aiwan Near Consensus With US on Trade Ahead of Trump's Deadline

대만과 미국 무역 합의 근접

- 대만 정부는 8월 1일 미 관세 유예 마감을 앞두고 미국과의 관세 합의 공동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말해 오랜 기간의 협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 대만 정부는 “기술적인 협상이 끝났으며 양측은 관세, 비관세장벽, 공급망 이슈, 경제 안보 등의 이슈에 대해 일정 단계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 현재 추가로 남은 이슈는 투자와 조달 이슈로 알려져 있는데 최종적으로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대만은 당초 32%의 관세가 부과된 상태인데 지금까지 4 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What to Know About the Legal Battle Over Trump's Tariffs

트럼프 관세 연방 항고 심리 시작된다

- 미 국제법원은 5월에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다음 날 항소법원은 이를 번복하면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관세 조치는 일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항소 법원의 심리가 시작되고 있다.
-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사용한 대통령 긴급권한의 합법성 여부이다. 그는 이 권한을 이용해 중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의 수입품에 관세 조치를 취했다.
- 그런데 법적으로 적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1962년 무역확장법의 섹션 232 조항인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 관세 조치다. 또, 1974년 무역법인 301조항에 따른 관세 조치는 불공정 관행에 대항하는 조치로 태양광, 반도체, 의약품 관련 관세 조치도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항소 판결 이후에는 대법원으로 가는 절차가 남아있다. 무역 법원의 반트럼프 관세 판결이 최종으로 유효할 경우, 미국의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 미국의 부채 감세안 발표에 따라 향후 10년간 3조 4천억 달러의 부채 상승이 예상되지만 관세로 인해 부채가 2조 8천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The Economist: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나 현재 외국 수출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부담을 나누어 지고 있는 상태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시행 이후, 작년 평균 2% 수준이었던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16%가 넘어섰다. 이는 193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 8월 1일 추가 관세 부과를 통보하는 서한을 보낸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 관세는 누가 부담하게 될까?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수출 기업들이 가격을 낮춰 관세 부담을 떠안아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The Economist 보고서 번역본

The Economist 보고서 원문

[인공지능]

WSJ: Why Microsoft and Meta Are Soaring After Earnings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성과 좋은 이유

-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주가가 크게 상승 중이다. 메타의 경우 AI 관련 연구자들을 적극 영입하는 상황에서 지난달에만 거의 6%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다.
-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올해 매출의 30% 이상을 자본 지출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예전의 15%, 20%의 지출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클라우드 운영의 큰 성장과 함께 관세를 앞두고 재고 확충에 힘입어 PC 출하를 늘렸으며 특히 Azure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실제 규모를 공개했는데 관련 연 매출이 7백50억 불을 초과했다.

WSJ 기사

[주택]

WSJ: Pending Home Sales Fell Unexpectedly in June 6월 미 주택 판매 예약 건수 예상보다 감소

- 전국 부동산 협회(NAR)에 따르면, 미국에서 6월 주택 판매 예약 건수가 예상보다 감소했다. 이는 높은 주택 가격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0.2% 상승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소폭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2.8% 감소한 수치이다.

- 지역별로는 중서부, 남부, 서부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북동부에서는 증가했다. 북동부는 미국 내에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 한편, 주택 매매는 6월에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구매가 가장 활발한 시즌에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경제 우려로 인해 매입을 꺼리고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Mastercard Profit Climbs on Revenue Gains From Spending, Services

마스터 카드, 서비스 및 지출 증가로 이익 성장

- 마스터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마스터 카드의 2분기 매출과 수익이 증가했다.
- 이들은 37억 달러의 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분기의 33억 달러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 마스터 카드의 매출은 17% 증가해 8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측한 79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들은 거래량의 증가로 결제 네트워크에서 수익이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 컨설팅 및 마케팅 서비스 등 회사의 서비스 매출은 23% 증가했다. 마스터 카드의 보안 서비스, 고객 확보 서비스, 그리고 가격 인상이 이번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WSJ 기사

[보고서]

꿈쩍 않는 파월...주가·국채↓, 달러↑ 연준 의장 "9월 회의에 대해 결정 내린 것 없어" 금리인하 기대에 '찬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 영향을 좀 더 지켜보겠다며 금리를 또 동결하면서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다.

또한 9월에도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국채 가격은 하락했고 달러화는 크게 올랐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171.71 포인트(-0.38%) 내린 44,461.28에 거래를 마쳤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